

F1 경주장 빠르고 편안하게 가기

환승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무안·광주공항, 목포역서도 상시 운행 병목 예상 영산강하구연 피하는게 상책

F1 경주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로 가더라도 환승주차장에 도착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남도는 F1대회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무안 남양신도시 인근과 목포역, 목포터미널 등 주요 교통혼잡 지점에 대한 교통통제와 가변차로 운영으로 교통량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가장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산강 하구연 진입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변차선제를 실시, 셔틀버스 전용노선으로 쓰게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광주와 서울에서 출발하는 각각의 교통편 위주로 가장 빠른 길을 정리해 보았다.

◇승용차편=광주방면에서 올 경

우 최대 병목구간인 영산강하구연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 1호선을 택해 영암(국도 13호선)이나 강진 쪽으로 진행한 후 지방도 819호선을 타고 대불산단으로 진입할 것을 권한다.

대불산단에는 승용차 6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이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주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는 1분 단위로 110대가 상시 운영된다. 경주장까지 가는 시간은 10분이면 된다.

대불산단 주차장이 가득 찼을 경우, 바로 옆 대불대의 환승주차장에 800여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종점까지 와서 목포시 북항에 마련된 북항 물량장으로 진입하면 된다. 이곳에서 마련된 환승 주차장은 승용차 3000여대가 주차 가능하다. 역

시 1분 단위로 130대의 셔틀버스가 경주장과 상시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1시간.

북항보다 경주장에 더 가까운 주차장을 원한다면 전남도청이 있는 남양신도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옆 대학 예정부지에 5200여대의 환승주차장도 있다. 이곳에서 경주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셔틀버스로 40분이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에서 나와야 한다.

◇버스편=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주장까지 직행하는 시외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첫차는 오전 9시10분 출발, 1시간 간격으로 경주장으로 향한 예정이나, 관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증편도 고려 중이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주장까지는 1시간20분이 걸리며 경주장까지 직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경우,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선과 결승 경주가 열리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새벽 5시30분, 오전 6시20분, 오전 7시, 오전 7시35분에 강남터미널에서 출발하는 4편의 버스는 노선을 연장, 경주장까지 곧바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4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는 것보다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간대 출발하는 고속버스(배차간격 35분)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KTX=목포역앞에서 25대의 셔틀버스가 KTX 도착시간에 맞춰 운영된다. 23일과 24일은 각각 오전 8시38분, 오전 10시37분, 오후 12시27분 3편의 셔틀버스가 경주장으로 향한다. KTX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풀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25대가 역 앞에 대기할 계획이다.

◇항공편=광주공항에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경주장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가 마련된다. 23·24일 오전 7시35분(OZ8701), 오전 8시25분(KF1301), 오전 10시20분(OZ8703)에 김포에서 출발,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유달산 강강술래 진도·해남·신안·목포의 강강술래보존회와 시민 강강술래단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강강술래가 지난 16일 목포 유달산 노적봉~삼학도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남도문화 열고, 맺고, 풀다'를 주제로 열린 '2010 문화의 달'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관련 인터뷰 16면> /목포=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맞춰 오전 8시50분, 오전 9시40분, 오전 11시40분에 각각 셔틀버스가 출발한다. 경주장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1시간20분이다.

무안공항에는 23일과 24일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임시 항공편이 1편씩 증편된다. 23일은 김포에서 오전 9시50분(OZ8797)에서 출발, 오전 10시45분에 무안공항에 도착하며, 24일은 김포에서 오전 8시(OZ8795)에 출발, 오전 8시55분에 무안공항에 도착한다. 각각 도착시간에 맞춰 셔틀버스가 대기한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F1 호텔·레스토랑 미리 가보니

모텔 146곳 재정비...통역 운영요원 상주 서양식·남도음식 15가지 'F1푸드' 준비

숙박업소와 음식점 점검을 위해 지난 16일 F1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F1호텔'과 'F1레스토랑'을 찾았다.

F1호텔은 전남도가 기존 모텔을 깨끗하게 재정비해 지정한 숙박업소로 목포·영암·해남·함평 등지에 146곳이 있고, F1레스토랑은 92곳이 운영 중이다.

F1경주장에서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인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인근에는 F1호텔 30여 개가 들어서 있다. 'F1 조직위원회 지정' 현관이 걸려있는 F1호텔에 들어가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F1 안내책자(국문·영문) 50여부가 입구에 놓여있다. 외국인인 5명 이상 투숙하는 곳은 통역 운영요원이 한명씩 상주해 있다.

또 외국인들에게 전화로 언제든지 설명해주는 '콜 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세탁서비스와 자동차 렌트예약 대행, 조직안내 등도 해준다.

F1호텔들은 손님 맛을 위해 2~3개월 전부터 5000~6000만원을 들

여 리모델링을 했다. 42인치 벽걸이 TV와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 이부자리, 벽지 등 모든 객실에 200만원 가량을 들여 물품을 교체했다. 대회 관계자들을 위한 안마기 침대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붉은색이거나 희미한 조명등도 밝은 형광등으로 모두 교체돼 퇴폐적이라는 기존 모텔의 분위기도 일신했다.

F1호텔 하루 숙박비용은 8만8000원. 평소 주말의 경우 4만5000원을 받기 때문에 두 배 가량 오른 금액이지만 리모델링 비용과 주말 '대실' 비용을 포함하면 비싼 편은 아니라는 업계측의 설명이다. 예약률도 90%를 넘어섰다.

8년째 W모텔을 운영한다는 강모(여·64)씨는 "F1호텔로 지정돼 침구는 물론 TV와 컴퓨터까지 모두 바꿨다"며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기 위해 위생적인 면에서 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는 걸어서 5

분 거리에 33곳의 'F1레스토랑'이 있다. 이들 음식점들은 'F1푸드'라는 메뉴를 마련해 손님을 맞을 계획이 있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F1 푸드에는 서양식 간편 조식(달걀 프라이·빵·커피·과일 등)과 갈낙탕·낙지비빔밥·불고기·버섯전골·떡갈비·전복삼계탕·한정식·생선회정식·순두부찌개·해물비빔떡 등 남도 전통음식 15가지로 구성돼 있다.

F1레스토랑 모두가 15가지의 음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메뉴 중에서 최소 2~3가지를 선정해 조직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레시피 등을 토대로 음식이 마련된다.

F1레스토랑의 하나인 '본토고기 푸줏간' 이은희대표는 "F1푸드도 갈낙탕·낙지비빔밥·버섯전골·불고기를 준비하고 외국인 편의를 위해 입식 테이블 8개를 설치했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남도인의 정성과 음식의 맛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F1 이모저모

연예인 류시원씨 현대자동차 서포트 레이스 선수 출전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서포트 레이스가 펼쳐진다.

양산차나 튜닝카 경주인 서포트 레이스는 그랑프리마다 통상 2~3개가 열리지만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쿠페를 튜닝한 경주차량들이 등장하는 1개의 서포트 레이스만 열린다.

25대의 제네시스 쿠페가 출전하는 현대 시리즈는 F1서킷 10바퀴를 가장 먼저 도는 선수에게 우승컵이 돌아간다.

특히 F1홍보대사이며 연예인 레이서로 잘 알려진 류시원도 선수로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출연 서포트 레이스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슈마허 자가용 비행기 입국

○~F1의 간판 스타인 미하엘 슈마

허를 비롯해 스타 드라이버와 VIP들이 개인 자가용 비행기편으로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슈마허는 21일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편으로 유럽에서 무안공항으로 직접 날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내 손꼽히는 부호이기도 한 버니 에클레스톤 FIA 회장 역시 슈마허와 같은 날 자가용 비행기로 무안공항에 도착한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비제이 말리아 포스인디아 팀 대표, 토니 페르난데스 로터스 F1 팀 대표 등 갑부급 팀 오너들도 대회 기간에 일박해 전용기로 한국에 들어온다.

드라이버 등 F1 관계자들이 전용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엄청난 소득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2주마다 전 세계를 돌며 열리는 빠른한 대

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피셜 시뮬레이션 교육

○~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책임질 마샬 및 오피셜 종합 시뮬레이션 교육이 지난 16일과 17일 영암 F1서킷에서 실시됐다.

카보와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오피셜 815명 전원이 각 분야별로 편성돼 주어진 임무를 소화해가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됐다.

오피셜에는 F1대회 참여 경험이 많은 CAMS사(호주 ASN) 122명이 포함돼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F1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오피셜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신호 깃발을 게시하거나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으로 심판과 진행요원의 성격을 두루 갖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